

김기태 감독 “또 다른 KIA가 되자”

“올해 목표 당연히 정상수성...나부터 의식 바꿀 것”

체력 테스트 재도입...제대로 몸 만들어야 기준선 통과



“나부터 바꾸겠다”. 디펜딩 챔피언 김기태 KIA 감독이 2018 시즌을 맞아 정상 수성을 목표로 세우며 새로운 변화를 주문했다. 작년 8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과 한국시리즈 불패신화를 이으며 KBO 리그 최강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팀의 도전을 받는 위치에서 힘차게 응전하자는 것이다. 김 감독은 “작년 시즌 우승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다. 팀이 힘들었을 때 무

너지지 않았다. 우리 선수들이 이기는 힘을 알았고 실제로 보여주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각별한 마음과 각오도 함께 전했다. 그는 “올해 목표는 당연히 정상수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KIA, 또 다른 선수 또 다른 김기태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 나부터 바꾸겠다. 아울러 (코치 및 선수들도) 다

시 한번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집권 2기를 맞아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마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있었다. 1~2군 코치진을 대폭 교환 배치했다.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의 내용이나 방식도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기존의 동행 리더십, 즉

선수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도 달라진 리더십도 예상이 된다.

또 하나 김 감독의 새로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체력 테스트 재도입이다. 2015년과 2016년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실시했고 작년에는 건너뛰었다. 주요 테스트 항목은 장거리 달리기와 인바디 검사이다. 제대로 몸을 만들어야 기준선을 통과할 수 있다. 김 감독은 이를 토대로 오키나와 전지훈련 참가 명단을 확정 짓는다.

아무래도 작년 우승 이후 훈련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대신 테스트 날짜를 1월 18일로 늦추었다. 김 감독이 체력 테스트를 다시 도입하자 선수들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체력훈련을 펼치며 전지훈련을 대비하고 있다.

이제는 작년 우승의 여운보다는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얼굴 표정이다.

김 감독이 달라진 KIA를 주문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2015년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정상을 수성하는 위치이다.

팀 전력도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랐다. 이제는 향후 꾸준히 상위권 전력을 유지하는 것도 큰 숙제로 꼽힌다.

올해도 KIA는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넥센, 롯데, SK, LG 등 탄탄한 전력 보강을 이룬 팀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수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변화 없이 우승에 안주한다면 언제 하위권으로 떨어질 지도 모른다.

달라진 KIA를 강조한 것은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를 지키자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승기



한교원

이승기·한교원, 2020년까지 전복 현대...“올해도 우승하자”

미드필더 이승기와 한교원이 2020년까지 전복 현대와 연을 이어간다.

전복은 11일 팀의 핵심 멤버인 이승기, 한교원과 3년 재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2018시즌 녹색 유니폼을 입고 전 주장을 누린다.

2013년 광주에서 전복으로 이적한 이승기는 K리그 82경기(상무 시절 제외)에 출전해 19골 17도움을 기록했다. 2014년과 2017년에는 K리그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을 수상했다.

이승기는 “더 많은 시간을 전 주장에서 뛸 수 있게 돼 기쁘다. 올 시즌 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유니티에서 전복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한교원은 201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2차전에서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두 번째 아시아 정상으로 이끌었다.

한교원은 “구단에서 더욱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나를 신뢰해 준 만큼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K리그 2연패와 AFC 챔피언스리그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복은 두 선수를 붙잡는데 성공하며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KIA타이거즈, 함평에 2군리그 전용구장 건립



함평군은 학교면 곡창리에 KIA타이거즈 퓨처스리그(2군리그) 전용구장을 건립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KIA타이거즈 허영택 대표이사과 조계현 단장, 김기태 감독 등이 안병호 함평군수를 만나 사업을 논의하는 모습.

학교면 곡창리 일대 3만3715㎡

함평군은 학교면 곡창리에 KIA타이거즈 퓨처스리그(2군리그) 전용구장을 건립한다고 11일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KIA타이거즈 허영택 대표이사과 조계현 단장, 김기태 감독 등이 안병호 함평군수를 만나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아자동차가 학교면 곡창리 일대 3만3715㎡ 부지에 2019년 상반기까지 함평-KIA 챔피언스필드 퓨처스리그 전용구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2군의 서머리과 시간을 감안해 조명탑 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경기

와 관람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지난 2013년 챔피언스필드를 곡창리에 개장한데 이어 퓨처스리그 전용구장까지 건립하면 함평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함평군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부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야구장이 완공되면 2019년부터 퓨처스리그 지상과 중계와 경기 관람객 증가 등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19년 말 영산강 강변도로까지 완공되면 인근 함평엘리체CC 등과 함께 스포츠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FA 채태인, 롯데 자이언츠행 카운트다운

사인&트레이드...보상금·선수無

2017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채태인(36)이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다.

채태인의 원 소속구단인 넥센 히어로즈 관계자는 11일 “채태인을 사인 앤드 트레이드하기로 롯데 자이언츠와 구두로 합의했다”며 “일단 채태인과 FA 계약을 해야 한다. 행정적인 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도 “채태인 영입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 풀어야 할 절차가 있고, 넥센과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넥센은 ‘훈련왕’ 박병호가 복귀하고 장영석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황에서 포지션이 겹치는 채태인과 재계약에 소극적이었다. 채태인은 이번 겨울 FA 시장에서 ‘준적극’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각 팀이 젊은 선수 육성에 집중하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동지를 찾지 못했다.

네센이 보상 선수 없이 보상금만 받고 채태인을 풀어주겠다고 선언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계약하지 못했다. 보상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연봉이 3억원인 채태인을 영입하는 구단은 넥센에 보상금으로 9억원을 줘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가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으로 영입할 의사를 내비쳤고 양 팀은 구두로 합의했

다. 넥센은 최근 채태인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원 소속팀이 계약을 한 후 트레이드하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을 취하면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

손아섭 잔류와 민병헌 영입으로 이번 겨울 적잖게 돈을 쓴 롯데는 사인 앤드 트레이드 방식을 취하면 보상금을 아끼면서 타선을 강화할 수 있다.

부산상고 시절 좌완 투수로 활약한 채태인은 2001년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했지만, 그해 왼 어깨 수술을 받았다. 2005년 방출됐다.

한국으로 돌아와 군 복무를 마친 채태인은 2007년 해외와 특별 지명으로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었고, 타자로 전향했다. 2016년 3월 투수 김재우와 1대 1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으로 이적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11시즌 동안 통산 981경기에 나선 채태인은 통산 타율 0.301 100홈런 550타점 415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타율 0.322(342타수 110안타) 12홈런 62타점 46득점을 기록했다.

장타력을 갖춘 좌타자 채태인이 합류하면 롯데는 우타자 1루수인 이대호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 타선의 좌우 균형을 맞추고 한층 파괴력을 더할 수 있다.

뉴시스



전남드래곤즈, 태국 해외전훈 통해 도약 준비한다.

오는 30일까지 21일간 전남만의 팀 컬러 입혀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 선수단이 10일 저녁 8시 김해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선수단은 오는 30일까지 21일간 벌어지는 체력훈련과 전술훈련 등 혹독한 탐금전을 통해 전남만의 팀 컬러를 입혀 더욱 단단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지난 3일 선수단 소집 후 광양에서 체력 훈련에 집중하던 전남드

래곤즈는 이번 태국 전지훈련 기간 동안 기존 선수와 영입 선수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선수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조직력 강화, 공격 다변화 및 상황에 따른 전술 능력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U-20 월드컵 대표 출신 신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경렬, 윤동민, 김민준 등 프로에서 경험있는 선수들이 합류함에 따라 지난해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과

의 주전 경쟁이 어느 해보다 뜨겁고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지휘봉을 잡고 첫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유상철 감독은 “선수들이 눈빛이 강해져야 하고 자 하는 열망이 강해져야”면서 “전남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전지훈련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전남드래곤즈선수단은 태국 전지훈련에 이어 2월 중순 중국으로 2차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체육본부장